

원주 대명원을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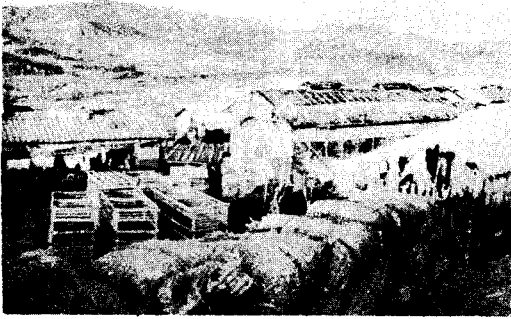
○ 3년만에 28만여평의 대지위에 꿈의 결실을 이룩한 조합장 조영환씨. 1,000명의 식구를 이끌고 오늘을 심는 씨의 밝은 표정에 어제의 어두웠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다.



○ 네곳의 계곡에 분산되어 있는 대명원의 가족들은 너도 나도 더 바쁘고 더 보람찬 신춘을 위해서 계사의 증축과 손질에 바쁘다. 사진은 본부 우측의 양계부락.



○ 기자가 방문해 본 어느 조합원의 부로일러 계사. 낮은 천정과 좁은 공간, 비교적 나쁜 환기등이 눈에 띄었으나 이런 문제를 노력으로 커버하는듯. 그러나 3년째 접어드는 계사와 단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더욱 철저한 방역대책이 요구될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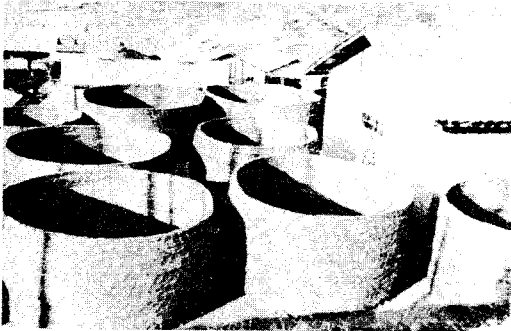


○전형적인 대명원 조합원의 생활 모습. 우측에 계사와 돈사, 중앙에 일광건조중인 목재 바타리, 그 뒤에 가정집, 앞의 가마니는 건조 계분으로 공동수집 판매된다.

○현재 한우 130두를 사육중인 우사. 농협과의 계약으로 산야초와 목초, 구내 사료공장생산의 배합 사료로 비육된다고.



○자체의 사료공장에서는 주로 우사료, 돈사료와 채란계용 사료를 생산한다.



○하루 6만본의 연필을 생산 한다는 연필공장앞 나무동치. 이들 나무는 이렇게 일광 건조되어 기계에 의한 인공건조를 거친후 제조된다고 한다.



○원주교외의 대명원은 26만평의 대지를 피와 땀으로 개간했다. 산등성이까지 개간된 밭에 쏟은 노고를 짐작하기는, 황량한 겨울바람 속에서 더우기 힘들것 같다.

생(生)은 영위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것. 생에 대한 포기나 모독은 곧 최악이라는 신조는 과연 그들에게만 필요한 교훈일까?



대 명 원



<조영환 씨>

취 재 부

강원도의 굽이치는 산길을 따라 원주시에 자리잡고 있는 대명원을 찾는다. 28만여평의 대지위에 수십만수의 양계와 고난을 이겨낸 1,000명의 굳센 삶이 자리잡고 있는 의지의 땅에 카메라의 초점을 잡는다.

..... 어제를 딛고 오늘을 개척하는.

원주시내에서 택시로 10분. 대명축산협동조합이라는 목제간판이 붙어있는 길을 따라 사무실을 찾았다.

몇명의 사무원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 한편에 전화를 들고 바쁘게 통화하시는 분께 조합장이 어떤분이신지 물어보니 미소를 머금고 자기라고 말한다. 처음부터 결례를 했다하여 당황도 했지만 바쁜마음에 취재노트부터 꺼내든다.

여경을 무릅쓰고 오늘의 대명원을 이룩한 과정에 대하여 조영환조합장께 들어보기로 한다.

..... 활무지에서 값진 결실을 맺다.

대명원은 15년전 보사부에서 현재의 대지를 불하해주고, 정부의 도움으로 계대군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출발하였다한다. 사회적으로 미숙하고,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가진 계대군인들이라 처음에 무척 난관이 많았던듯 싶다.

「처음에는 우왕좌왕 하다가 정부에 보조에만 기댄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보조도 한계점이 느껴지고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자활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옆에 계신 윤덕중상무는 대명원이 지금같이 발전하게 된 것은 현재의 조합장님이 취임한

2~3년간이었고 조합장의 노력이 이렇게 결실된 것이라고 한다.

현재의 대명원은 계사 500동, 육계 11만수, 채란계 1만수, 양돈 1,200두, 비육우 130두 등을 사육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사료공장, 연필공장, 제재소는 15,000평과 밭 6만평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중에서 조합원의 가장 큰 사업이 양계부문이라 하겠지만 기타 획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업들이 조합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느껴졌다.

..... 조합의 구성과 운영

현재 조합의 운영은 조합장인 조영환씨 밑에 별표와 같은 조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382세대에 1,000명으로 구성된 조합원은 원료 구입 판매등을 모두 조합측에 일임하고 있으며 생산물판매에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사료비 약품비 제반경비등을 뺀 실수익을 조합원에게 지급한다고 한다.

육계의 경우 수당 약 40원이 생산자의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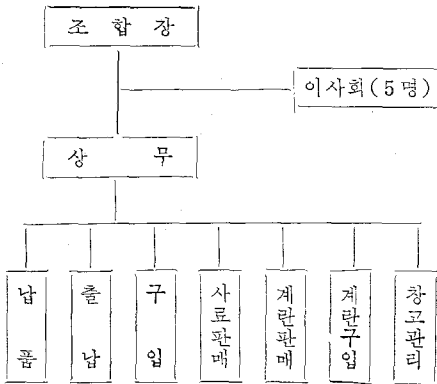
조합의 운영은 부대사업의 이익금과 출자금 사료판매시의 수수료등으로 운영되며, 특히 조합원들이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있을 때는 조합원

들이 조합에 위탁을 하고, 은행융자등도 받아서 신용조합을 개설하여 의욕적이고 타당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에게는 얼마든지 신용대출을 해준다고 한다.

조합장 조영환씨는 「의욕있는 삶을 찾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부연한다.

현재 조합의 사무직원은 10명이며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사업이 시행된다고 한다.

대명 축산협동조합의 기구도



조합장 : 조영환

이사회 : 김길중 · 김원중 · 김홍찬 · 김용남 · 박병열

상무 : 윤덕중

..... 근면하게 삶을 갖는 대명원가족.

기자는 운상무의 안내를 받아 대명원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다.

먼저 찾아본 연필공장에서는 하루 6만개의 연필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공장앞에 원형으로 쌓아놓은 피나무(연필의 나무부분의 원료)가 인상적이었다. 이어서 구내 사료공장을 둘러보았는데 함마·밀과 믹서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작년까지는 소요되는 전사료를 이 공장에서 생산했으나 지금은 체란계사료와 우사료, 돈사료만 생산하고 있으며 부로일터 사료는 서울의 모사료회사에서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원료의 장기확보 문제와 기술훈련 등에 애로가 있어 자체생산을 포기하고 육계용사료를 하루 8톤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상태로 보아 사료의 질도 좋은 것 같고 더우기 사료회사 계약회사에서 월 2~3회 기술지도를 해주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운상무는 이어 자체내에 정규교육을 받은 기술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지원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외의 제재소등의 시설로 조합의 수입을 올리며 조합원의 바타리제조등의 재료로도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비교적 자급자족의 조직이 탄탄하게 짜여 있어 부당한 손해를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듯한 신념이 보이는 것 같아 인상적이었다.

이어서 대충 돌아본 조합원의 계사는 환기문제 급은문제등의 개선필요성이 눈에 띄었고 북향으로 된 산기슭 네곳에 집단화 되어있는 계사들의 방역위생문제가 가장 큰 애로점이 되지 않을까 짧은 생각을 해 보았다.

모든 조합원은 사료를 받아서 정성을 들여 키워 조합에 판매를 위탁하고 있으며 모든 필요물품은 공동구입과 공동판매를 해서 중간상인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고 있었다.

..... 철저한 공동 방역대책

조영환 조합장은 양계단지로서의 질병오염의 위험성과 그 피해가 크리라는 점을 미리 주의해서 철저한 공동방역대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조합내에 냉장고를 비치하여 백신보관에 만전을 기하고 의무적으로 공급하여 초생추를 들여온지 3일후와 15일후에 1,2차 예방을 한다고 하며 수시로 집단소독을 한다고 한다.

이점에 있어서는 개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반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나 필요할 일일 것 같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현재까지 질병의 피해는 별로 느껴보지 못했으며, 또한 항상 조합원에 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 생산물의 판매는 제일의 애로점.

생산된 생산물은 의당 생산비에 적절한 이윤이 가해진 가격으로 판매되어야 한다. 그러나 힘이 약한 농민들은 때때로 이러한 당연한 이윤을 외면당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지화해서 뭉치는 것이 더욱 더 절실해지지 않나 싶게

도 하다.

대명원의 생산물 판매에 대해서 조합장 조영환씨는 「현재 군남으로 50%, 서울의 중간상인과 제척방면의 상인들이 50%정도씩 구매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간상인에게 판매하는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산물의 품귀 현상이 일어날 때는 찾아와도, 그들 지역의 공급이 순조로우면 이곳까지 오지를 않기 때문이죠」

올해의 군남에서 부로일리는 생체 kg당 200원씩 남품되었다하며 금년 7.8.월에는 생산물판매가 되지않아 큰 고충을 겪었다고 한다.

「금년 여름에는 30단kg이나 체화되어서 냉동처리하여 위기를 넘겼습니다. 반면에 11월에는 생산물이 모자라서 절절 땀지요. 하하...」

조 조합장은 내년도에는 50만수 수용목표로 계사를 확장중이라면서 밖으로 시선을 옮긴다. 여기저기 계사의 신축공사가 한창이라 내년도의 증설계획을 한마디로 말해주는것 같았다.

금년 여름의 위기를 견디어 낸것은 그간 아껴두었던 자본력의 힘이었다고 말하면서 내년을 향한 의지를 번득이는데는 듯 하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현재의 애로점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하여 짚은 문한 기자에게

「저는 사업의 성패를 이렇게 가름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우량병아리를 공급해주고 사료 회사에서는 우수한 사료의 공급, 그리고 개인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이 잘 조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과 조합원의 고충이 바로 전양계가의 고충이 아니겠냐고 반문하면서 이점의 조속한 개선없이 는 국내의 양계업체 발전속도는 매우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대명원은 덕소의 신앙촌같이 노력하여 단결할것을 강조하며 오늘을 전진하고 있다. 신앙촌과 다른 것은 그들의 결합이 종교라는 매개물대신 서로의 신뢰와 노력으로 묶여진다는 점일게다.

이곳 저곳 건설에 바쁜 대명원을 뒤로하고 어느듯 기울은 서산의 해에 겨울을 새삼스레 기자는 발앞에 느낀다.

귀로길에 기자는 어디선가 들어본듯한 어귀나가 생각난다.

「정직과 근면은 어떤 당하지 않고, 봄에 뿌린 씨앗은 정직과 근면으로 그대들에게 결실을 안겨 줄것이니라.」



마력병을 制圧・진압성白血病을 克服
世界第一 醱酵原菌
 超強力발효原菌 (네오모우가루菌)

本菌의 特徴

- 발효사료 一 本(本菌 1包)을 30일정도 2000원 이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抗枯性物質作用에 의하여 動物에 有害한 病原菌 살균함(마력병을 殺菌)
- 數日分도 한번에 만들어 쓸수 있음.
- 발효처리・ 건조정장하여 10개월간 사용할수 있음.
- 다른 발효균을 사용해서 효과를 못보신 분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 미생물번식 촉진기
 ● 原菌億倍繁殖器
 ● 모우가루식 自動攪拌機
 ● 自動点灯器

「네오모우가루菌」
대표적 한류 식품자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갈매리 35
 경남 마산시 월영동 28

金 湖 明
 朴 甲 然

韓國技術提供輸入總販賣元
祐進藥品工業株式会社
 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동 185-1
 전화 331-7220

總製造元
日本微生物応用畜産研究所
 福井県三國町下野三五
 전화 〇七七六〇三五二三番
 振替 金沢九一六番